



LA한국교육원, 전남교육청과 제2회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 개최

- 남가주 지역 중·고교에서 한국어 과목 수강한 학생 72명이 참가
- 수상자들에게는 대학진학 후 한국유학 시 장학금 우선 지원 혜택 제공
- 독도, 사투리, 산후 미역국 등 한국문화를 학생의 시각에서 감동적으로 소개

□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6월 28일(토), 로스앤젤레스(이하 LA)한국교육원에서 제2회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양 기관이 함께 주최한 행사로,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 남가주 지역 중·고교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72명의 학생이 참가한 예선 글쓰기 대회를 거쳐 선발된 14명의 학생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한국문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 주제는 독도, 부채춤, 사투리, 산후 음식(미역국), 한국 악기 등 다양했으며, 학생들은 각자의 경험을 가미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여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해 수상자들이 행사 진행 사회자와 통역사로 참여하여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한글대상과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박수정 학생과 Areli Nonato 학생은 공동 사회자로 활약하였으며, 2025년 수상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열정을 다한 학생에게 영예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어사화를 물려주며 한국문화를 향한 애정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 어사화: 임금이 장원급제자에게 장원의 재능과 충성을 칭찬하며 하사하는 꽃 장식으로 장원급제자는 어사화를 꽂은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거리로 나가 그 영예를 누렸습니다.

□ 대회 결과, 1등상에 해당하는 한글대상은 Rosemont Middle School의 Sarah Yoon(8학년)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세종대왕상(2등상)은 South Torrance HS의 Jin Choi(9학년), Cleveland HS의 Karis Yoo(9학년), San Joaquin HS의 David Hirota(11학년), Fairfax HS의 Joyce Kang(11학년) 학생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총 14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수상 학생들은 LA한국교육원 학생 통역사 및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LA 지역에서 열리는 한국 관련 행사에서 통역 및 문화 홍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상 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장·단기 유학을 할 경우 LA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 대학 학비 감면·면제 등 장학 지원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 사투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여 한글대상의 영예를 안은 Sarah Yoon학생(Rosemont Middle School, 8학년)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투리를 알게 되고 한국문화의 다양성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애정이 깊어졌다” 고 말하였고, Sarah Yoon 학생의 아버지 윤여경 씨는 “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할 것을 권했는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Suzanne Risse Rosemont 중학교 교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향한 공통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고 말하고, “학생들이 자신 있게 문화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힘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고 전했습니다.

□ 공동주최기관인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은 “깊이 있는 발표 주제와 학생들의 개성 넘치는 시각으로 해석된 한국문화 발표를 보며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와 표현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LA한국교육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아름다운 한국문화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LA한국교육원 강전훈 원장은 “오늘 대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게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발표대회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한국문화의 아름다움과 매력적이고 배우고 싶은 언어인 한국어 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유학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한국을 사랑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붙임 : 2025년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 사진 14장 끝.

※ 관련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213-386-3112) Homepage: www.kecla.org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213-386-3112)
	담당자	

사진 1 : 2025년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에 참석한 학생, 가족, 교육자들



사진 2: 발표 내용에 관한 퀴즈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 사회자들 (2024년 세종대왕상 수상자 Areli Notato 학생, 2024년 한글대상 수상자 박수정 학생)



사진 3: 발표에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사진 4: 오방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Karis Yoo 학생(Cleveland High School, 9th)



사진 5: 2025년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 수상자들과 발표대회를 진행한 학생 사회자들 (앞줄 왼쪽부터: 최 진 2025년 세종대왕 수상자, Areli Nonato 학생 사회자, Sarah Yoon 2025년 한글대상 수상자,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 박수정 학생 사회자, 김미정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사진 6: 2025년 한글대상 수상자 Sarah Yoon 학생에게 어사화를 물려준 2024년 한글대상 수상자 박수정 학생 (왼쪽부터: 김미정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Suzanne Risse Rosemont Middle School 교장, 박수정 학생, Sarah Yoon 학생,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



사진 7: Sarah Yoon학생(Rosemont Middle School, 8th)에게 한글대상을 수여하고 있는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



사진 8: 2025년 한글대상 수상자 Sarah Yoon 학생(가운데)과 학부모



사진 9: 사투리와 표준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Sarah Yoon 학생(Rosemont Middle School, 8th)



사진 10: 삼일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Erin Dai 학생(West High School, 10th)



사진 11: 코리아타운의 추억을 소개하고 있는 Ian Matthew Masangkay 학생 (Palos Verdes Peninsula High School, 12th)



사진 12: 한국 전통음악을 향한 애정을 소개하고 해금으로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는 Joyce Kang 학생(Fairfax High School, 11th)



사진 13: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는 소울 가야금 오케스트라



사진 14: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는 4x8 K-Pop 댄스 그룹

